

교간(僑刊)으로 보는 냉전기 화교화인의 정체성

- 광둥성 차오산 화교 격주간지

『차오저우향신(潮州鄉訊)』을 중심으로 -

김 종 호*

요약

19세기에서 20세기 남중국해를 오간 대표적 화교화인 방언집단인 광둥성 차오산(潮汕) 지역은 9개의 현(縣)과 산터우시(汕頭市)로 구성되어 있다. 동남아시아에 정착한 차오산 화교화인 사회와 그들의 교향 지역은 세계적 격변기에서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본 연구는 이념적 갈등과 내셔널리즘 열풍이 동시에 몰아닥친 냉전기 그들의 정체성 형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1947년에서 1962년까지 냉전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된 교간(僑刊)인 『차오저우향신(潮州鄉訊)』은 냉전기 그들의 교류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소개 및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차오저우향신』은 사료적 가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기존 광둥성 타이산(台山)에서 발행된 교간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다른 방언 집단의 교간을 연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두 번째, 기존 교간 관련 연구가 다루지 않는 냉전기에 집중할 수 있다. 『차오저우향신』이 냉전기(1947-1962)에만 발간되었다는 특징 때문이다. 세 번째, 다른 교간들과는 달리 『차오저우향신』은 냉전과 함께

* 서강대 동아연구소 조교수. 본 논문의 부족한 부분들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비평과 제안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교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 싱가포르의 차오저우 출신 화교화인 인사들이 합심하여 싱가포르에서 제작, 발간하여 배포한 교간이다.

본 연구는 그 시작점으로서 『차오저우향신』의 개요와 전체적 구조 및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총 273 권호의 개별 표지 사진 및 그림을 분석하여 냉전기 동남아시아 화교화인과 교향 지역사회 사이의 연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되었는지, 혹은 적응 및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결과적으로 『차오저우향신』의 구조 및 형식, 표지 이미지가 함의하고 있는 차오산 화교화인 및 교향 지역사회의 특징은 제국에서 국민국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아시아적 냉전 구도 속에서 방언 집단으로서의 지역 정체성을 유지함으로써 생존을 추구하였다는 점이다.

주제어: 교간, 화교화인, 차오저우향신(潮洲鄉訊), 차오산, 냉전, 교향

I. 서론

동남아시아 화교화인 사회와 그들의 고향인 교향(僑鄉) 지역사회 사이의 연결성 및 네트워크에 주목하는 연구는 상당히 오래된 주제로 이미 다양하게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남중국해 해역 공간을 무대로 한 초국적 중화공동체의 형성이라는 맥락 아래 이를 역사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Chia 2020; Ma 2017; Heng 2013; Douw 1999). 이러한 연구들은 남중국해 해역 공간을 하나의 무대로 상정하여 중국 동남연해 지역과 동남아시아 사이에서 이루어진 화교화인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나의 문명적 단위로 묶으려 시도한다. 다만, 이 권역이 공동의 정체성을 지닌 단일 단위라고 보지는 않는다. 중국인 이민사의 측면에서 남중국해 해역 공간은 중국계의 다양한 방언 집단이 각자의 지역 정체성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매개로 그들만의 보이지 않은

영역을 구축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¹⁾ 그러한 배경에서 화교화인은 역사적으로 국가와 국민이라는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주민과 그 교향 지역사회라고 하는 경계에 항상 위치해 왔다.

차오산(潮汕) 지역은 그 가운데 대표적 교향이자 화교화인 배출지이다. 차오산은 차오저우(潮州)와 산터우시(汕頭市)로 구성되어 있는데, 차오저우는 다시 9개의 현(縣)으로 이루어져 있다. 차오안(潮安), 쩡하이(澄海), 라오핑(饒平), 지에양(揭陽), 차오양(潮陽), 푸닝(普寧), 후이라이(惠來), 평순(豐順), 난아오(南澳), 따푸(大埔) 등이다. 산터우시는 차오저우로 향하는 관문도시로 푸젠성의 샤먼시(廈門市)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광둥성 동북부에 위치하여 푸젠과 면하는 차오산 지역은 광저우와 주장 델타 지역 인근을 중심으로 한 광둥인들과 푸젠 남부의 민난(閩南)인들 사이에서 그들만의 지역적 색채를 뚜렷이 드러내 왔다. 이 지역 역시 광둥이나 푸젠과 함께 대표적 교향으로 대륙부 동남아시아의 태국, 해양부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에 수많은 화교화인들을 배출한 초국적 방언 집단을 형성하였다. 흔히 동남아시아 현지에서는 차오저우계 방언의 발음을 활용하여 ‘떼오추(Teochew 潮州)’, ‘스와투우(Swatow 汕頭)’라 불린다.

동남아시아의 차오산계 화교화인 사회와 교향 지역사회가 초국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공동으로 생존을 영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많은데, 대표적으로 송금이 있다. 화교화인들이 보내주는 송금은 경제

1)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동남아시아 화교화인의 출신지역은 중국 동남연해 지역의 광둥(廣東), 푸젠(福建), 하이난(海南)이 대부분이다. 이들을 방언 집단으로 구분하면 크게 다섯 단위가 되는데, 푸젠(특히 남부지역인 민난閩南), 광둥, 광둥 북부의 차오산(潮汕), 커지아(客家), 하이난이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룰 차오산의 경우 차오저우(潮州)와 산터우시(汕頭市)를 가리킨다. 이 다섯 방언 집단은 각자의 방언과 관습, 환경, 문화의 측면에서 지역적 색채가 뚜렷하여 하나로 묶기 쉽지 않지만, 이주민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화교화인’이라는 큰 틀에서 공통의 연구대상이 되기도 한다.

적인 측면에서 화교화인 사회와 교향을 연결하는 핵심 기제인데, 차오산 지역의 경우 중일전쟁 이후 전시 기간에도 이 연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Kim 2018).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또 다른 매개자 거의 주목받지 않았던 화교화인들의 정기간행물, 즉 교간(僑刊)에 주목하였다. 교간 관련 연구는 그동안 화교화인 연구에서 무역이나 이민, 송금 등에 비하면 그리 주목받는 주제는 아니었다. 이는 대부분의 교간이 광둥성, 특히 대표적 교향인 타이산(台山) 지역을 중심으로 다량 발행되었기 때문인데, 기존 연구들 역시 이 지역 교간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Hsu 2000; 2004; 姚 婷 2011; 2014; 2017; 2021; 林 燕 2023; 李瑞璞 2021). 푸젠이나 차오산 지역의 교간은 그 사례가 드물 뿐 아니라 상당수 교간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교향 지역사회에서 발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가 선전의 측면이 강하다(Douw 1999). 다만 본 연구에서 소개하고 활용할 『차오저우향신(潮州鄉訊)』의 경우 냉전기에 집중적으로 발간된 교간으로 교향 지역사회가 아닌, 싱가포르의 차오산계 화교화인들에 의해 간행되었다는 측면에서 드문 사례이기에 사료적 가치가 크고 그간 거의 연구된 바도 없다.²⁾ 즉, 본 연구는 『차오저우향신』이라는 차오산계 화교화인들의 정기간행물의 분석을 통해 최소 백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초국적, 초지역적으로 형성된 이주민 사회와 출신 지역사회 사이의 지역 정체성이 냉전기라는 시대적 도전에 대응해 가는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2) 『차오저우향신』은 1947년에서 1962년까지 냉전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관련 연구로는 장후이메이(張慧梅 2005)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지만, 구체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사료 소개에 가깝다.

II. 교간(僑刊)의 역사적 특징과 『차오저우향신(潮州鄉訊)』의 사료적 가치

교간(僑刊)은 좁은 의미로는 화교화인이나 교향(僑鄉)의 지역사회가 두 공동체 사이의 소통을 위해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를 비롯하여 신문, 비정기적 소식지까지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공식/비공식 출간물을 가리키기도 한다.³⁾ 그 발간의 주체 역시 개인, 씨족 집단, 학교, 지역 기반 협회, 회관, 교향 지역의 지방 정부 등 다양하다. 교간의 발행은 근대 중국인 이주가 절정이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이후 1920년대에서 30년대까지가 절정이었고, 2차 대전을 거쳐 중국대륙이 공산화하면서 두 지역 사이의 교류가 거의 끊어진 이후에는 그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 교향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광둥성(廣東省)과 푸젠성(福建省)의 경우 1998년 기준 각각 140건, 27건의 교간이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교간 발행의 흐름은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역사적 특징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⁴⁾

1. 초기, 1900년대-1930년대 전반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이른 시기의 교간은 1909년 1월에 나온 『신닝 잡지(新寧雜誌)』로 지금의 광둥성 타이산(台山, 당시에는 신닝으로 불림) 지역 출신 화교화인들과 교향 지역 거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발간

3) 다만, 본문에서 교간은 좁은 의미를 가리키며, 주로 화교화인과 교향의 지역사회를 연결하기 위해 발간된 정기간행물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Douw 1999; 張慧梅 2005).

4) 본 문에서 소개하는 시기 구분과 각 시기별 특징은 도우(Douw 1999)의 연구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Hsu 2000; 2004; 姚婷 2011; 2014; 2017; 2021; 林燕 2023; 李瑞璞 2021; 尚光一 2015).

되기 시작했다. 핵심 목적은 두 가지인데, 우선 양 지역 화교화인과 친지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보 및 소식을 교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다른 하나는 화교화인들로 하여금 현지 교향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런 이유로 『신닝잡지』는 타이산 현지의 정황, 타이산이나 중국 내 다른 지역의 새로운 소식들, 교향의 역사, 관습, 전통 등이 주를 이루었고, 주 구독층은 타이산 출신 해외 거주 화교화인들이었다. 교향의 소식을 다양하게 전달함으로써 향토의식과 지역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카이핑(開平), 신후이(新會), 인핑(恩平) 등 소위 ‘장먼우이(江門五邑)’라 불리던 주강(珠江) 델타 지역의 대표적 교향들을 중심으로 교간이 활발히 발행되는 모습이 보인다.⁵⁾ 이 지역에서만 『카이핑화교월간(開平華僑月刊)』, 『신민월보(新民月報)』, 『펑차이월간(風采月刊)』, 『푸산월보(浮山月報)』, 『쓰이 화교도보(四邑華僑導報)』, 『타이산화교잡지(台山華僑雜誌)』, 『신닝잡지(新寧雜誌)』, 『쯔양월간(紫陽月刊)』, 『따형청년(大亨青年)』, 『인핑공보(恩平公報)』, 『강중교우통신(岡中校友通訊)』, 『원로우월보(文樓月報)』, 『신후이사뚜이교안월보(新會沙堆僑安月報)』 등 다양한 교간들이 발간되었다.

무엇보다 이 시기 교간의 발간이 가능했던 것은 성(省)이나 대도시 단위뿐 아니라, 지방 현(縣) 단위 화교화인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중국 인구의 유출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광둥성 및 푸젠성, 하이난도 등에서의 해외 노동이민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로 난양(南洋)이라 불렸던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중국계 이주민의 증가가 현지 식민정부를 위협할 정도였다.⁶⁾ 게다가 청(淸)제국과는 달리 1911년 신해혁명

5) 장먼우이는 타이산, 카이핑, 신후이, 인핑, 허산(鶴山)을 가리킨다.

6) 애덤 맥퀸(McKeown 2010, 98)의 연구에 따르면 1840년에서 1940년 사이 푸젠, 광둥, 하이난에서 동남아시아로 이주한 중국인의 숫자가 대략 1600만에서 2100만 사이인

이후 건립된 중화민국(中華民國)은 교무(僑務)를 제도화하려는 의지가 강했기에 교간의 발간을 통한 교류에 적합한 제도적 환경 역시 주어졌다. 광둥과 푸젠 지역은 당시 중국에서 가장 근대화하고 서구 문명과 오랫동안 교류한 지역으로 이 지역 경제와 도시개발의 상당 부분이 화교화인들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 정부뿐 아니라 중앙정부 역시 그들과 지역 교향사회와의 경제적 연계를 중시하고 있었다. 교간의 발간은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교간을 발간한 타이산 지역이 가장 활발하게 교간을 활용한 교향이었다. 1936년 기준 이 지역에서만 63가지 종류의 교간이 발행되고 있었는데, 그 분포 범위는 북미와 동남아시아가 핵심이고, 그 외에 일본이나 아프리카에 보내진 기록도 있다. 또 한 가지 이 시기의 특징은 교간의 발간에서 중앙, 혹은 지방 정부가 직접 간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체로 간접적인 관리자의 역할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점이다.

2. 전쟁 시기, 1930년대 후반-1949년

중일전쟁의 발발부터 태평양 전쟁, 국공내전으로 이어지는 전시기 동안 기존 교간의 발행은 거의 중단되었는데, 중단되지 않은 교간들은 대부분 전시체제 관련 소식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전환된다. 새로운 잡지가 발행되어 해외의 화교화인 공동체에 전시상황을 전달하면서 애국송금과 지원을 독려하는가 하면, 기존 교간이 같은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전시기 교간 발행의 특징은 혈연 및 지연 기반 지역

데, 그 절정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이었다. 이 시기 집중적으로 이주한 것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서구의 식민지 대농장 경영이 절정에 달해 대량의 노동력을 요구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 정부가 싱가포르에 영사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자국민의 해외 이주에 서서히 열린 태도를 보여준 것이 이 시기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을 강조하던 기존의 목적에서 애국, 내셔널리즘을 매개로 국가 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기조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시기 화교 화인들의 정체성이 지역성 중심에서 국가 중심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모습을 교간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으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한층 복잡해지지만, 국공내전 기간에 이미 화교화인들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현(縣)정부, 성(省)정부 단위에서도 교간의 발행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 정부 차원 교간 발행 개입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3. 개혁개방 이전, 1949년-1977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이후 교간의 발행은 국공내전 시기에 이어 정치적 목적이 더욱 뚜렷해진다. 다만 절정기이던 1920-30년대에 비하면 그 발행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데, 냉전의 구도 속에서 주로 자유주의 국가에 거주하는 해외 화교화인들과의 소통이 자칫 이적행위로 몰릴 수 있기에 교간 발행은 물론 일상적 연락조차 쉽지 않은 시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초기와 대약진운동 시기에는 교간들이 크게 체제 선전의 목적을 가진 기사들과 귀국화교(歸僑)들에 대한 처우 관련 홍보, 해외 화교화인들로부터의 경제적, 물질적 지원 요청 등의 목적으로 발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부가 직접 발간하는 교간은 물론이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발행되는 교간 역시 정부의 이러한 기조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시기가 되면 더욱 그런 경향이 강해져 민간에서의 자발적 교간의 발행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4. 개혁개방 이후

개혁개방 이후 교간의 발행은 1920-30년대 절정 시기 못지않게 활기를 보인다. 최초의 교간인 『신닝잡지』가 바로 1978년 타이산 지역민들에 의해 재발간되기 시작하였고, 1979년에서 1987년 사이 광둥성에서만 848만 부의 교간이 발행되어 전 세계에 배포되었으며, 1987년에서 90년까지 200만 부의 교간이 발행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더욱 증가하여 1996년 한 해에만 230만 부의 교간이 발행되었다. 다만 이 시기 교간의 발행은 그동안 끊겼던 해외 화교화인들과 지역민들 사이의 소식 교환뿐만 아니라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상과제가 된 화상(華商)들과의 경제적 연계가 더욱 중요한 목적으로 자리 잡는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

개혁개방 이후 정부 차원에서 교간을 통한 화교화인과의 연계에 집중한 것은 경제적 목적이 컸다. 1980년대 개혁개방 초기만 해도 해외 화인들로부터의 거의 자선에 가까운 원조 사업을 요청하는 방식이었다면, 1990년대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강화(南巡講話) 이후 보다 적극적인 자본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특히 해외 직접투자의 마중물이 되어줄 화상들의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방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교간을 발행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진출을 지역성에 기반하여 유도하는 흥미로운 모습도 발견된다. 1990년 기준 40%가 넘는 교간이 각 단위 정부에 의해 발행되는 교간이었다.

다만, 이상과 같은 교간의 발간은 전 시기에 걸쳐 상술한 광둥성, 특히 주장 델타 지역 ‘장먼우이’라 불리는 교향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 외 주요 화교화인 배출 지역은 교간의 발행에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는데, 특히 광둥과 함께 중국계 이주민 배출지로 쌍벽을 이루는 푸젠 지역의 경우 교간 발행이 상대적으로 늦었을 뿐 아니라 그리 활발하지도 않았다. 상술한 것처럼 최초의 교간이 1909년

주강 델타의 타이산이었던 것에 반해, 푸젠의 경우 1942년 샤먼(廈門)의 『지메이교우(集美交友)』가 그 시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마저도 이후 대부분의 교간이 1950년대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것들이다. 1950년 『루오양향신(螺陽鄉訊)』, 1956년 『용당향신(永定鄉訊)』과 『뤼펑(鷺風)』, 1957년 『푸티엔향음(莆田鄉音)』과 『안시향신(安溪鄉訊)』 등이 있고, 오히려 1980년대에 들어 각 현 단위로 활발하게 발간되는 모습을 보인다. 1981년 『샤먼채풍보(廈門采風報)』를 시작으로 다양한 교간들이 발행되었다(尚光一 2015; Douw 1999).

타이산을 비롯한 주변 주강 델타 지역의 이웃한 교향들의 경우 주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의 금광 노동자로 이주한 화교화인들을 배출했던 반면, 푸젠의 화교화인들은 대부분 난양이라 불리던 동남아시아로 이주한 이들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오갈 수 있고 인적 이동 역시 활발한 푸젠 남부(閩南) 지역과 동남아시아의 사이보다는, 거리가 훨씬 멀고 인적 이동도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통 역시 쉽지 않은 타이산과 미국 사이의 연계에 교간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게다가 19세기 말부터 미국과 호주에서 실행되기 시작하는 이민금지 정책 때문에 양 지역 사이의 소통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중요한 이유였을 것이다(Pan 1999). 다른 한편으로 19세기 초중반부터 중국 전역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기 시작한 광둥성의 활발한 출판문화 역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차오저우향신』의 사료적 가치는 우선 기존 교간 연구가 주로 타이산을 비롯한 광둥성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측면에서 푸젠이나 주강 델타 지역의 교향이 아닌 또 다른 주요 화교화인 방언 집단, 즉 차오산(潮汕) 지역의 사례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기존 교간 관련 연구가 대부분 1920-30년대 근대기

나 전쟁 시기, 개혁개방 이후 교간의 발간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독특하게도 냉전기(1947-1962)에만 발간된 『차오저우향신』은 냉전기 동남아시아 화교화인들의 교향 인식은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 제국의 시대에서 국민국가의 시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그들의 초국적 지역 정체성은 어떻게 변화해가는지를 확연히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교간이 교향이나 조국에 대한 관심과 경제적 지원을 촉구 및 유도하기 위해 교향 지역의 민간단체나 지방 정부가 주도하여 화교화인들을 대상으로 발간해 온 것에 반해, 『차오저우향신』은 냉전의 시작과 함께 교향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싱가포르의 차오저우 출신 화교화인 인사들이 합심하여 싱가포르에서 제작, 발간하여 교향 지역으로 배포한 교간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교간 연구와는 다른 차원의 논의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그 시작점으로서 『차오저우향신』의 개요와 전체적 구조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총 273 권호의 개별 표지 이미지(사진, 그림)를 분석하여 냉전기 동남아시아 화교화인과 교향 지역사회 사이의 연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되었는지, 혹은 적응 및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차오저우향신(潮州鄉訊)』의 발간 경위 및 형식

『차오저우향신』을 발간한 주 편집자는 우이상(吳以湘)으로 1912년 쩡하이현(澄海縣 현 산터우시)에서 태어나 싱가포르로 건너 와 중정중학(中正中學)의 총교(總校)로써 역사와 지리를 가르쳤다. 일찍이 동남아시아 차오산 출신 화교화인과 교향 지역 사이의 연계에 관심이 많던 그는 1948년 8월 싱가포르에서 “말라야차오저우향신사(馬來亞潮州鄉

訊社)”를 설립하고, 매달 두 차례 출간되는 격주간지 『차오저우향신』을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경비는 우이상이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어 온 차오산 지역 인사들과 동남아시아 차오저우 출신 화교화인 지도자들의 찬조 및 관련 기업의 광고비를 통해 주로 획득하였다. 그 덕분에 『차오저우향신』 전체 권호에 걸쳐 차오저우 및 산터우 지역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각종 물품, 서비스업, 산업의 종류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수많은 광고들이 발견된다. 발간의 목적은 동남아시아의 차오저우 출신 화교화인들과 교향의 거주민들이 서로의 문물과 소식을 끊임 없이 교환함으로써 초국적으로 형성된 차오저우 지역민들의 향토적 정체성, 지역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함이다(吳以湘 1948).

1947년 8월 16일 제1권 1기가 발간된 이후 『차오저우향신』은 26권 제1기가 나오는 1962년 1월 1일까지 총 273호가 배포되었다. 1958년 상반기 22권까지는 격주간지로서 매달 1일과 16일의 발간일을 반드시 지켰다. 1958년 하반기 9월 1일부터는 출간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1959년에는 24권 1월호에서 5월호까지의 출간에 그쳤고, 그 이후 1961년 1월 1일에 1기, 1962년 1월 1일에 1기를 출간하고 정간(停刊)한 것으로 보인다.⁷⁾ 한편, 『차오저우향신』의 구조는 원고의 많고 적음에 따라 1950년대 하반기부터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형식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1. 단평(短評)/평론(評論)

전체 차오저우 지역 9개 현, 산터우시, 동남아시아 화교화인 사회에 걸친 주요 이슈를 다루는 부분으로 처음에는 ‘단평(短評)’이었다가 이

7) 우이상은 『차오저우향신』 정간 이후 『범마차오신(泛馬潮訊)』이라는 교간을 다시 간행하지만, 역시나 1964년 1편, 1965년 1편, 1966년 1편, 1968년 2편을 발간하는 것에 그쳤다.

후 ‘평론(評論)’이라 쓰이기도 한다. 주요 내용은 발간 당시 교향 지역 사회 및 동남아시아 화교화인 사회에서 가장 화제가 되거나 주목해야 할 소식들을 다룬다. 예를 들어, 제1권 1기의 첫 번째 단평은 “차오저우 대학 창립(創辦潮州大學)”이었고, 그 외에도 자연재해에 대한 소식(“潮州水災實錄”), 당시 만연했던 도적들에 대한 소식(“如何制裁變相之盜匪”), 교향 지역사회의 주요한 수입원이었던 화교 송금을 둘러싼 논의(“潮汕各縣截留僑批”) 등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 전체 목록만 봐도 194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까지 차오저우 지역민들과 지역 출신 화교화인 공동체의 주요 관심사를 엿볼 수 있다.

2. 지역별 동향

단평, 혹은 평론이 전체를 포괄하는 이슈를 다룬다면 이 부분은 영국령 말라야와 산터우시, 그리고 차오저우를 구성하는 9개 현의 지역별 동향을 개별적으로 다룬다. 각각 ‘말라야 차오저우 화교 동태(馬來亞潮僑動態)’, 산터우시(汕頭市), 차오안현(潮安縣), 쩡하이현(澄海縣), 지에양현(揭陽縣), 차오양현(潮陽縣), 후이라이현(惠來縣), 푸닝현(普寧縣), 평순현(豐順縣), 라오팡현(饒平縣), 난아오현(南澳縣)이라는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역별 소식을 교간을 출간하는 편집인이 직접 취재하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지역별 현지 신문사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뉴스들을 전달하는 형식이다.

3. 부간(副刊)

‘부간’은 정식 기사가 아닌, 주로 외부의 투고를 받아 실는 방식으로 채워지는데, 그런 이유로 주제 역시 다양하다. 차오저우 출신 화교화인

및 교향 거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다 보니, 주로 그리 주목하지 않았던 지역 소식이나 연속 연재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초기 발간된 권호에서는 차오저우 방언을 시리즈로 연재하거나 지역 출신 유명인사에 대한 간략한 전기, 노래 가사, 시 등이 실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구조가 잘 드러난 『차오저우향신』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차오저우향신(潮州鄉訊)』第一卷 第六期 (1947年 11月 1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평(短評)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 풍재를 말하다 (禍不單行話風災)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要怎樣加強團結) 향진의 장에 대한 우리의 태도 (我們對於鄉鎮長副的態度) 광저우 팔읍회관 취화당 산업정리 개요 (穗潮州八邑會館聚和堂產業整理的概訊) 니안공쓰를 기록하다 (記義安公司, 本刊資料室) 지에양의 선정(揭陽之選政, 徐一峯) ○ 난양 각지 차오저우 화교 동태 (南洋各地潮僑動態) 끌랑 차오저우 회관 개막 성회 기록 (巴生潮州會館開幕志盛) 정하이중신사가 대신 전보를 쳐서 재해 구제를 청하다(澄海中社鄉代電請救災) 양찬원이 차오저우의 재해 구제를 호소하다(楊纘文爲潮災呼籲) 귀쯔치엔이 학업을 위해 1500만 위안을 지원하다(郭子千助學一千五百萬元) ○ 산터우 신문(汕頭新聞) ○ 潮安新聞 ○ 澄海新聞 ○ 揭陽新聞 ○ 潮陽新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普寧新聞 ○ 惠來新聞 ○ 豐順新聞 ○ 饒平新聞 ○ 大埔新聞 ○ 南山新聞 ○ 副刊版 정치개혁을 논하다(論政治改革, 成暢軒) 정하이현령의 경계 기사(澄海縣令交界花絮, 新聲) 라오핑 지형의 전설(饒平地形的傳說, 光) 난아오 현장 린스핀(南澳縣長林師珍) 차오양 마내원을 기록하다 (記潮陽馬耐園, 張大元) “차오저우 방언” 선집 6 (“潮汕方言”選輯 六) 무폐가(舞弊歌, 高潮) 차오저우 가요(潮州歌謠, 春櫻) 민간의 수수께끼(民間謎語 十四-十八) 의약문답(醫藥問答, 吳幼山)
---	---

이 외에 목차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최초 일 년간 발행된 권호에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반월상정(半月商情)과 선기(船期) 항목이다. ‘선기’의 경우 싱가포르를 기준으로 기선(機船)의 입출항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선이 떠나는 날짜와 도착하는 날짜가 있고, 목적지는 주로 산터우, 샤먼, 상하이, 켈커타, 자카르타, 호주, 리버풀, 하이난, 홍콩, 프랭가누, 팔렘방 등 차오저우인들의 활동반경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반월상정’은 산터우와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산들의 시장 가격을 기재해 놓은 부분이다. 광둥성의 대표적 교향인 차오저우의 관문 항구도시, 산터우와 세계적 항구도시인 싱가포르는 각종 물산이 집산되는 곳이면서 차오산 지역민 및 화교화인들의 주요 경제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냉전 초 이 두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⁸⁾

예를 들어 1947년 8월 16일에 발행된 『차오저우향신(潮州鄉訊)』 첫 번째 호의 경우 ‘반월상정’의 산터우 지역 상업 물산 현황에는 금융정황, 미곡류(米糧), 밀가루와 잡곡(麵粉什糧), 설탕(食糖), 기름유(油類), 면직품(綿織品), 연료(燃料), 성냥(火柴(箱)), 양약(西藥), 조제약(成藥), 약재(藥材), 화장품(化粧品), 종이류(紙類), 해산물(海味), 북방과일(京果), 육류(肉類) 등의 항목에 총 139가지의 품목이 나열되어 있고, 각 품목별 현 시세까지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산터우의 물산뿐 아니라 싱가포르(星洲)의 물산 역시 미곡류(米類), 곡물류(糧類), 콩류(豆類),

8) 이 두 항목의 경우 1948년까지는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왔지만, 1949년부터 서서히 비중이 줄어들다가 1949년 후반부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양 지역의 교류가 급격히 통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시기부터 『차오저우향신』의 내용은 동남아시아 차오산 화교화인의 동향에 대해 서술하는 내용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반월상정’의 경우 1949년부터는 본문의 표와 같은 자세한 내용은 없이 대략적인 경제 상황만을 기술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두 지역사회가 서서히 단절되어 가는 새로운 과도기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커피, 잡화(雜貨), 기름과 소금(油鹽), 쌀가루(米粉), 가루(粉類), 후추(胡椒), 금융정황(金融行情 환율) 등의 목록 아래 다양한 물품들의 가격이 제공되고 있다. 전후 냉전 초기 이 두 지역의 상품 가격이 초국적으로 공유되는 지점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격주로 발간되는 『차오저우향신』의 형식과 구조, 내용은 동남아시아의 화교화인 사회와 교향의 지역사회가 상호연결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제이주라고 하는 현상에 의해 초국적으로 분리된 두 지역이 하나의 권역임을 인식시켜주는 기제로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 두 지역이 교간을 공유하며 읽는다는 자체가 교향의 지역민들에게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활약하는 지역 출신 화교화인들의 활동과 생활상을 간접 경험하는 것이고, 반대로 차오산 출신 화교화인들은 그들이 떠난 지역의 사건/사고를 접하면서, 그리고 방언과 역사, 풍습 등을 새삼 접하게 되면서 두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무의식적으로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매들린(Madeline)은 교간을 통한 이러한 경험을 분석하면서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상상의 공동체’라는 개념이 국가뿐만 아니라, 이주민과 교향의 지역사회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Hsu 2000). 두 학자의 연구 모두 출판문화의 발전과 출판물의 공유가 공동체의 소속감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부분에서 궤를 함께하고 있다. 『차오저우향신』의 경우 차오저우, 혹은 차오산이라는 향토의식, 더 나아가 초국적 지역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한 위상의 의도처럼 간행물에 담겨있는 대부분의 콘텐츠가 그러한 차원에서 목적성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⁹⁾ 이러한 경향이 시각적으로 가

9) 다만 매들린(2000)이 이주그룹과 교향 지역사회 사이의 연결성을 ‘상상의 공동체’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 및 이해하려 한 시도에 대해 그 의도와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주민의 지역정체성과 베네딕트 앤

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매 호마다 실려있는 표지 사진 및 그림과 같은 이미지 자료이다.

IV. 『차오저우향신(潮州鄉訊)』 표지 이미지 속 초국적 지역 정체성

1948년 2월 16일부터 발간되는 『차오저우향신』 제2권 제1기부터는 개별 호마다 표지에 사진이나 그림이 실리게 되는데, 차오저우 화교화인 및 교향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들이다. 총 250여 편이 넘는 표지의 이미지 자료들은 다양한 내용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향성을 보인다. 즉, 중국에서는 난양이라 부르던 동남아시아의 차오산 출신 화교화인과 그 교향인 차오저우 지역과 산터우 지역이 하나의 권역이라는 점,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점, 서로의 삶과 생활상, 풍경 등을 공유해야 한다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뚜렷이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다. 큰 틀에서는 두 지역 사이 유대감과 차오저우인, 차오산인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¹⁰⁾

- 1) 차오산 지역 및 동남아시아의 풍경과 문화
 - 교향 지역 풍경

더슨(2018)이 말한 내셔널리즘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인데, 앤더슨이 내셔널리즘을 상상의 산물이라고 정의한 것은 내셔널리즘, 혹은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국가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거나, 교육되거나, 권력에 의해 주입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반면, 지역 정체성은 하나의 공동운명체로 상상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할지 몰라도 특정한 권력이, 혹은 구조가 의도를 가지고 주입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 10) 각 부분별 구체적인 표지 이미지 예시는 아래 부록에 자세히 수록해 놓았음.

- 교향 지역 문화
- 동남아시아 풍경
- 2) 동남아시아 (주로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차오산 동향조직 활동
 - 동향조직 관련 건축물 전경
 - 동향조직의 활동
- 3) 차오산 화교화인의 초국적 자선 및 구제 활동
 - 자선 활동 기관 전경
 - 차오산 자선기관의 자선활동
- 4) 차오저우 출신 저명인사
- 5) 차오산 화교화인의 교육 활동

『차오저우향신』의 표지 이미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교향 및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자선 및 구제활동이다. 1947년과 48년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태평양 전쟁과 국공내전으로 중국 전역이 황폐화한 시기였다. 1948년에 간행된 제2권 2, 3, 4기에는 쩡하이현의 폐허가 된 공묘의 사진(“澄海縣孔廟廢墟”), 전화로 인해 파괴된 차오저우 금산지구를 그린 목각판화(“殘破的金山”), 기아에 허덕이는 차오산 지역민들의 사진(“飢餓的潮汕”)이 실려있어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이어진 전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교향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교향의 지역민들을 돕기 위한 차오산 화교화인들의 각종 구제 활동 및 자선단체의 활약상 역시 전체 권호의 표지에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선당(善堂)’ 조직과 ‘중화선당 블루크로스 구제총회(中華善堂藍十救濟總會)’의 활동이 있었다.

1948년 제2권 8기 간행물과 1950년 제6권 3기 간행물 표지에는 각각 1947년과 1948년 차오안(潮安)의 중산공원(中山公園)에서 행해진

차오산 화교화인들의 자선 물자 배급 활동이 소개되어 있다. 공원을 가득 메운 지역민들이 동향조직인 회관(會館)과 동향의 자선조직인 선당에서 나눠주는 음식, 차, 물 등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사진 설명에 따르면, 차오안현 증산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구제 활동은 그 역사가 깊다. 차오안현에서 차오저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구제 물품을 전달한 것은 청 말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매년 춘절(春節) 마지막 날 차오저우 각지에서 모여든 지역민들에게 구제품을 배급해 왔다. 구제품은 홍콩, 산터우, 상하이, 베트남, 태국, 말라야, 싱가포르 등에서 차오저우 출신 화교화인들이 기부한 것들이고, 구제품을 받기 위해 사정이 어려운 빈민들이 각지에서 기차를 타고 차오안현으로 모여들었다. 1947년 기준 9억 3천 7백만 위안(國幣), 115 홍콩 달러(HKD), 38,616 파운드의 쌀이 대략 3만 명에게 전달되었다.

그 외에도 동구선당(同救善堂), 수덕선당(修德善堂), 동봉선당(同奉善堂) 등 차오저우계 선당들이 교향 사회 및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한 모습들이 표지 이미지에 잘 드러나 있다. 선당, 혹은 선사(善社)는 화교와 그 가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선조직을 가리키는데, 그 기원은 명(明)과 청이 교체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李志賢 2017). 명청이 교체되던 혼란기에 유랑민이나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의 자발적 자선조직이 그 기원으로 중국 전역에 분포되어 있던 조직이었으나 근대에 와서는 차오저우계의 불교기반 선당 조직의 활동이 두드러진다(片岡樹 2018; 黃蘊 2010). 지역마다 그 활동 영역이나 구제 및 자선의 방식이 다르지만, 차오저우계통 선당 조직의 기능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片岡樹 2018:175).

가. 증의시약(贈醫施藥): 증의사(中醫師)의 무료진료 및 약 처방, 더 나아가 의원 경영

- 나. 과정접제(過境接濟): 경계를 넘어온 난민들에게 식사 및 숙박 제공
- 다. 시관수염(施棺收殮): 관 및 묘지 제공, 사체 수습, 장례
- 라. 소방구호(消防救護): 소방대 및 구호대 조직
- 마. 흥변의학(興辨義學): 무료학교 및 고아원 경영

선당의 이러한 기능은 아래 부록의 『차오저우향신』 표지 분류 가운데 자선활동 및 교육활동으로 분류된 이미지들에 잘 드러난다. 선당 조직뿐 아니라 차오산 화교화인 공동체가 위와 같은 활동을 해온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1942년 일본의 동남아시아 점령으로 더욱 큰 어려움에 빠진 공동체를 위해 이들 선당들은 공동의 단체를 조직하는데, 바로 ‘중화선당 블루크로스(藍十) 구제총회(中華善堂藍十救濟總會)’였다. 당시 싱가포르의 차오산계 대표 선당인 수덕(修德), 동봉(同奉), 보구(普救), 동경(同敬), 남안(南安) 선당이 연합하여 설립하였다.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1950년에 다시 활동을 재개하여 주로 노숙자, 빈민 구제나 화재 피해 복구 등에 자선 활동을 펼쳐왔다. 1956년 제18권 2기의 간행물 표지에는 중화선당 블루 크로스 구제총회가 싱가포르의 화재 구역에서 자선 활동을 펼치는 사진이 실려있다. 싱가포르에서도 차오산계 화교화인들이 주로 모여있던 어퍼 세랑군 로드(Upper Serangoon Road)의 화인 거주구역을 휩쓴 화재사고를 복구하기 위함이었는데, 당시 화재로 인해 18채의 집이 불타고, 150여 명이 거주공간을 잃었다고 한다.

사실 『차오저우향신』에는 유독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차오저우, 샐터우 등에 걸친 화교화인들의 자선 및 구제 관련 소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기사에도 많이 드러나 있는데, 무엇보다 1947년 첫 번째 호에서 가장 두드러진 소식이 곧 차오안현에 있었던 수재피해를 싱가포르의 화인 조직들이 어떻게 도와주었는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싱가포르 화교들이 (교향의) 재난을 구제하기 위해 거액을 송금하다(해천사 차오안현 소식). 우리 현에서 싱가포르로 건너간 교포들이 우리 현이 이번 장마로 수재를 입어 손실이 막심해진 것에 대해 특별히 제조선사(濟潮善社) 명의로 기부를 모금하였고, 모두 3억 1,600만 위안(國幣)을 모아 어제 각 지역 선당(善堂)으로 위탁 송금하여 음식을 나누어 주도록 함(施粥)으로써 수재민들을 구원하였다.”

여기서 해천사는 해당 지역 신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상술한 것처럼 교향 지역 전역을 아우르는 교간의 특성상 각 하위 지역의 신문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같은 호의 연속기사에 따르면 1947년의 광둥성 차오안 지역의 수해는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60년 이래 최대의 재해라고 하고, 각 지에서 백 명 단위, 최대 천 명 단위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다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의 차오안 출신 화교화인들이 선사와 선당 조직을 통해 이재민 구제 활동에 기여하였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전후 복구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차오산 지역에 걸쳐 초국적으로 발생하는 수재, 화재 등과 같은 재해에 대해 화교화인 단체들이 초국적으로 대응하며 구제에 힘쓰고 있다는 소식은 양 지역에 걸친 화교화인과 교향의 지역민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지역민들에게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였을 것이다.

다른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이주민 공동체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후속세대의 재생산 및 교육이었다. 동남아시아의 화교화인 그룹은 어떠한 방안 집단을 막론하고, 교육기관의 설립과 이주민 후예의 교육을 중시하였다. 차오산계 화교화인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차오저우향신』의 표지에는 그 양상들 역시 다양하게 드러나 있다. 주 편집자

인 우이상 본인이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가장 자주 나오는 학교는 싱가포르의 단몽학교(端蒙學校)다. 지금까지도 싱가포르 현지에서 ‘투안몽 고등학교(Tuan Mong High School)’로 남아있는 단몽학교는 1906년 차오저우계 ‘콩쓰(Kongsi 公司)’에 의해 설립되었다. ‘투안몽’은 ‘단몽’의 차오저우 방언식 발음으로 이 학교는 1955년 고등학교가 되었다. ‘콩쓰’는 차오저우계의 지연 중심 협회를 의미하고, 방언 집단으로서 다른 방언 집단에 대항하기 위한 비밀결사 조직(secret society)적 성격과 공식 씨족 협회(clan association)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조직이다. 가장 유명한 차오저우 계열의 ‘콩쓰’로는 ‘니안콩쓰(Ngee Ahn Kongsi 義安公司)’가 있다.¹¹⁾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진 및 그림은 차오산 및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풍경 및 문화를 주제로 한 것들이다. 특히 산터우시 중산공원(中山公園)은 10회 가까이 실렸고, 산터우시의 소공원(小公園), 부룻가, 벽석산, 거리의 모습, 도서관, 극장 등 도시 곳곳의 풍경이 등장한다. 무엇보다 산터우는 19세기 차오저우 지역을 오가는 관문 항구도시였는데, 1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1922년 태풍으로 도시의 상당수가 파괴된 이후 1920-30년대에 걸쳐 차오산 화교화인들의 투자와 지원으로 도시개발을 통해 근대 도시적 면모를 갖추었다. 중산공원의 중서합벽(中西合璧)의 정원이나 소공원의 솥하우스(shop houses 騎樓) 고층건축물들은 그 과정에서 조성된 것이다. 표지 사진에 자주 보이는 산터우시의 경관은 차오산 출신 화교화인들에게 그들의 노력으로 변모된 교향 최대 도시의 근대화를 계속 상기시켜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문화분야의 경우 ‘경극(京劇)’에 비견되는 차오저우 지역 특유의 ‘조극(潮劇)’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띄고, 차오산 출신 화교 예술가

11) ‘니안콩쓰’는 지금도 차오저우 계열의 단체로 상업, 자선,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싱가포르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홈페이지 참조 <https://thengecannkongsi.com.sg/en/> (검색일: 2023. 07. 10.).

들의 활동에 주목하면서 그들의 작품을 신는 경우도 많았다. 천충스위(陳宗瑞)의 “수상마을(水上人家)”, 차이밍쯔(蔡名智)의 “손을 씻다(洗手)”, 쟡가오웨이(鄭偉高)의 “어부(漁人)”, 런바이니엔(任伯年)의 “가을을 감상하다(賞秋)”와 “화조(花鳥)”, 차이명상(蔡夢香)의 “산사의 새벽종(山寺曉鐘)” 등은 개별 화가들의 개인적 명성뿐 아니라 교향 지역 출신으로서 차오저우의 지역성을 선명히 드러내는 작품들이다. 인물 관련해서는 차오산 출신으로 군사, 학계, 경제, 교육,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명인사들의 사진이 실려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표지 사진 가운데 드물게 중화인민공화국 아래 차오산 지역의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다. 1952년 제11권 6기 간행물에 실린 차오산 연해를 방어하는 “중공 포병대(中工砲兵隊)”의 사진도 있고, 1957년 싱가포르 중국관찰단(星洲中國觀察團)의 차오저우계 단원들이 차오저우 곳곳을 둘러보는 사진들도 있다(제19권 12기, 제20권 1기). 싱가포르 중국관찰단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영국의 봉쇄와 소련의 견제 아래 공업화와 경제적 근대화에 힘쓰고 있던 중국의 요청으로 교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싱가포르 중화총상회(SCCC Singapore Chinese Chamber of Commerce 中華總商會)가 조직한 견문단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 건너 간 싱가포르의 화교화인 기업인들은 중국 당국과 교역을 재개하기 위해 다양하게 협상했지만 결국에는 협상이 불발되었다(Lim 2012).

산터우시에 지어지고 있던 화교신촌(華僑新村) 관련 사진들도 있다. 1957년 제20권 5기와 8기의 간행물에는 한창 건설 중인 화교신촌의 모습과 이곳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화교 리쩌홍(李澤洪)의 모습이 보인다. 화교신촌은 1955년 반동회의 이후 동남아시아 화교 자본가들의 귀국과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해 계획된 프로젝트로 중국 정부는 화교화인 및 그 교향의 가족들에게 새롭게 근대적으로 지어진 주택단지를 제공

함으로써 투자와 귀국을 유도하였다. 1955년부터 화교화인 가족들에게 선전하면서, 광둥성의 광저우(廣州), 푸젠성의 취안저우(泉州), 장저우(漳州) 등에 지어지기 시작하였다. 주로 부유한 화상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한국전쟁 이후 경제적으로 고립된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 화상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심한 ‘자본주의적’ 노력이자 이주민인 화교화인과 교향 사이의 연계를 활용하려는 전략이었다(김종호 2020).

V. 결론

차오산 출신 화교화인들의 교간인 『차오저우향신』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냉전이라는 역사적 맥락이다.¹²⁾ 제국적 질서에서 국민국가 기반 국제질서에 내던져진 지역성 강한 남중국해의 화교화인 네트워크는 다양한 측면에서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주는데, 교간에는 그 양상들이 다양하게 드러나 있다. 중국에 세워진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으로 넘어간 국민당 정부, 동남아시아에서 막 독립하기 시작한 국민국가들의 존재는 이주민 그룹인 화교화인들로 하여금 경계의 방언 집단이 아닌 특정 국가와 민족성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동안 제국의 우산 아래 초지역적 이동을 비교적 자유롭게 해오던 그들에게 배타적 경계설정을 특징으로 하는 냉전기 내셔널리즘 열풍은 지역성을 버리고 국가 정체성을 가질 것을 강요하는 시대적 전환으로 다가왔다. 그러한 시대적 흐름 아래 화교화인 속 방언 집단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지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

12) 최근 냉전기 화교화인들의 지위와 정체성에 집중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천라이신(陳來幸 2023), 타오모 쉰우(Zhou 2019), 바바 기미히코(2020) 등이 있다.

력하는데, 『차오저우향신』은 그 최후의 몸부림처럼 보이기도 한다. 당시 수많은 교간들이 정부 권력의 선전도구로 활용되는 가운데,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 출간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한 『차오저우향신』은 이 시기 남중국해 화교화인의 초국적 지역 정체성이 어떤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지의 일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본문에서 살펴본 『차오저우향신』의 구조 및 형식, 표지 이미지가 함의하고 있는 차오산 화교화인 및 교향 지역사회의 특징은 제국에서 국민국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아시아적 냉전 구도 속에서 방언 집단으로서의 지역 정체성을 유지함으로써 생존을 추구하였다는 사실이다.

투 고 일: 2023년 07월 10일

심사완료일: 2023년 08월 07일

게재확정일: 2023년 08월 07일

참고문헌

1. 국문

- 김중호. 2020. “친공(親共)과 애국 사이-CIA 문서를 통해 본 냉전초 동남아 화교화인의 대중(對中)인식.” 『중국근현대사연구』 85: 193-227
- 바바 기미히코. 장원철 역. 2020. 『세계사 속의 중국 문화대혁명』. 서울: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 앤더슨, 베네딕트. 서지원 역. 2018. 『상상된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 도서출판 길.

2. 중문

- 吳以湘 主編. 1947-1962. 『潮洲鄉訊』 第一卷 第一期(1947年) - 第二十六卷 第一期(1962年). 潮洲鄉訊社.
- 李瑞璞. 2021. “介紹南洋：民國僑刊中的社會調查述略（1910—1920）.” 『八桂僑刊』 3期: 27-34
- 李志賢. 2017. 『藍十春秋：新加坡潮人善堂考』. 中華善堂藍十救濟總會.
- 賴鈺麟. 2018. “潮汕善堂的民間信仰 慈善事業與信仰經濟 - 以汕頭市 X Y 善堂三元運作模式爲例 -.” 『中國非營利評論』 21(1): 200-218
- 林 燕. 2023. “民國時期五邑僑刊述評.” 『五邑大學學報(社會科學版)』 25(2): 37-41
- 尚光一. 2015. “文化產業視域中的福建僑刊鄉訊.” 『福建江夏學院學報』 5(3): 82-87
- 吳以湘. 1948. “評論：一年來的回顧與前瞻.” 『潮州鄉訊』 第3卷 第1期.
- 姚 婷. 2011. “僑刊中的僑鄉社會與“僑”“鄉”網絡.” 『華僑華人歷史研究』 4期: 21-30
- 姚 婷. 2014. “利用僑刊整合資源與推進民間僑務工作研究.” 『五邑大學學報(社會科學版)』 16(4): 1-6
- 姚 婷. 2017. “僑刊參與華南僑鄉社會治理的實踐初探 - 以1949 年前的台

山僑刊爲例.”『華僑華人曆史研究』第1期: 29-37

姚 婷. 2021. “民國時期江門五邑僑刊中的歸僑群體研究.”『五邑大學學報 (社會科學版)』23(4): 10-14

張慧梅. 2005. “從《潮州鄉訊》看新加坡潮人的跨國想像.”『華南研究資料中心通訊』39期: 21-34

3. 일문

片岡樹. 2015. “タイ國における中國系善堂の宗教活動 - 泰國義德善堂に見る中國系宗教とタイ仏教 -.”『東南アジア研究』52(2): 172-207

黃 蘊. 2010-2. “マレーシアにおける華人民間教派の現在 - いくつかの展開方向-.” Osaka University Forum on China (Discussion Papers in Contemporary China Studies): 2-23

陳來幸 編. 2023. 『冷戰アジアと華僑華人』. 風響社.

4. 영문

Chia, Jack Meng-Tat. 2020. *Monks in Motion: Buddhism and Modernity Across the South China Se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Douw, Leow. eds. 1999. *Qiaoxiang Ties -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to 'Cultural Capitalism' in South China*. Leide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sian Studies.

Heng, Derek. 2013. “Trans-Regionalism and Economic Co-Dependency in the South China Sea: the Case of China and the Malay Region (tenth to fourteenth centuries AD).”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35(3): 486-510

Hsu, Madeline Y. 2000. “Migration and Native Place: Qiaokan and the Imagined Community of Taishan County, Guangdong, 1893-1993.”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9(2): 307-331

Hsu, Madeline Y. 2004. ““Qiaokan” and the Transnational Community of

- Taishan County, Guangdong, 1882—1943.” *China Review* 4(1): 123-144
- Kim JongHo. 2018. “Between Cooperation and Survival: Overseas Chinese Remittance Business in Chaosha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1939-1945).” *Social Transformations in Chinese Societies* Issue 1: 79-96
- Lim, Jason. 2012. “To Negotiate Trade and Avoid Politics: The Overseas Chinese Trade Missions to China and Taiwan, 1956-1957.” Nicholas Tarling ed. *Studying Singapore’s Past*. Singapore: NUS Press.
- Ma Guoqing. 2017. “Intra-regional social system: cases of the Maritime Silk Road around the South China Sea Rim.” *International Journal of Anthropology and Ethnology* 1(7): 1-18
- McKeown, Adam. 2010. “Chinese Emigration in Global Context, 1850-1940.” *Journal of Global History* 5(1): 95-124
- Pan, Lynn. 1999. *The Encyclopedia of the Chinese Overseas*.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 Zhou, Taomo. 2019. *Migration in the Time of Revolution – China, Indonesia, and the Cold War*. Ithaca: Cornell University.

부록1 『차오저우향신(潮州鄉訊)』 표지 이미지 분류

1) 차오저우 및 산터우 지역 풍경과 문화

- 교향 지역 풍경

산터우 증산공원(汕頭中山公園) (제2권 제5기/제7기/제10기 1948년/
제5권 제11기 1950년/ 제8권 제12기 1951년/ 제11권 제8기
1952년/ 제21권 12기 1958년/ 제22권 제2기 1958년)

차오안 증산공원(潮安中山公園) (제2권 제9기 1948년/ 제10권 제9기
1952년)

산터우 서제부두(汕頭西堤碼頭) 전경 그림 (제2권 제11기 1948년)

차오저우 서호 명승지(潮州西湖名勝地) (제5권 제8기 1949년)

산터우 벽석산(汕頭碧石山) 풍경 (제7권 제4기 1950년)

산터우 시가(汕頭市街) (제7권 제7기 1950년)

산터우 벽석도(汕頭碧石渡) (제7권 제8기 1950년)

산터우 팔경 서호(潮州八景 西湖) (제10권 제8기 1952년)

산터우시 도서관(圖書館) (제10권 제10기 1952년)

산터우시 소공원(小公園) (제18권 제5기 1956년)

산터우 신화극장 외관(汕頭新華劇院外觀) (제19권 제4기 1956년)

산터우 증산공원 유람(汕頭中山公園遊艇) (제19권 제6기 1956년)

차오저우시 개원사(潮州市開元寺) (제20권 제10기 1957년)

산터우 석포대 수영장(汕頭石砲台游泳場) (제21권 제2기 1957년)

평순현성 양경진 전모(豐順縣城湯坑鎮全貌) (제22권 제1기 1958년)

차오저우 서호 옥대교 개수 후의 장관(潮州西湖玉帶橋改修後之壯觀)
(제22권 제6기 1958년)

정하이 포 미련양 선박 사진(澄海埔尾蓮陽渡船掠影) (제22권 제10기
1958년)

- 교향 지역 문화

- 차오저우 지역 토속 가무 영가무(英歌舞) (제5권 제12기 1950년)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차오저우의 남녀 농민들 (제7권 제2기 1950년)
난아오현 어민의 생활 일별 (제7권 제6기 1950년)
차오양현 어민의 야간작업 (제8권 제3기 1951년)
차오산 지역 어린이들의 거리 연극활동 (제8권 제4기 1951년)
천충스위(陳宗瑞)가 그린 “수상마을(水上人家)” (제9권 제8기 1951년)
조극(潮劇) “쌍옥해(雙玉蟹)”의 한 장면 (제10권 제11기 1952년)
차이밍쯔(蔡名智)의 “손을 씻다(洗手)”라는 제목의 목판화 그림 (제14권 제8기 1954년)
정웨이가오(鄭偉高) “어부(漁人)” 그림 (제17권 제7기 1955년)
그림 “난초(王者香)” - 판창지엔(范昌乾) 작품 (제19권 제7기 1956년)
그림 “가을을 감상하다(賞秋)” - 런바이니엔(任伯年) 작품 (제20권 제4기 1957년)
그림 “화조(花鳥)” - 런바이니엔(任伯年) 작품 (제20권 제5기 1957년)
차오안 평시 자기공장 사진(潮安楓溪瓷器工場之影) (제20권 제6기 1957년)
중국 영화 명감독이자 영화국 부국장인 차오저우인 차이추성과 극단원들의 사진촬영(中國電影名導演電影局副局長潮人蔡楚生與潮劇團團員合影) (제20권 제9기 1957년)
조극 노정순향반 개관 첫 밤 공연에 관중들이 붐비는 모습(潮劇老正順香班開台首晚觀衆擁擠之鏡頭) (제20권 제11기 1957년)
그림 “산사의 새벽종(山寺曉鐘)” - 차이명시앙(蔡夢香) 작품 (제21권 제7기 1957년)

- 동남아시아 풍경

- 싱가포르 식민 건축군 풍경 (제5권 제4기 1949년)
싱가포르 차오저우 화교화인들이 모이는 중심가 시장의 풍경 (제5권 제10기 1950년)

싱가포르 차오저우 화상 주요 활동지구 - 보트키 (제9권 제6기 1951년)
쿠알라룸푸르 차오저우 화상 주요 활동지구 (제9권 제7기 1951년)
싱가포르 차오저우 화교화인 조직 여덕사(礪德社) 악단의 퍼레이드 (제10권 제5기 1952년)
엘리자베스 여왕 사진 (제12권 제8기 1953년)
조호르바루 차오저우 팔음회관과 여러 단체들이 연합하여 진행한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기념 퍼레이드 (제12권 제9기 1953년)

2) 동남아시아 (주로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차오저우 출신 화교화인 동향조직 활동

- 회관 관련 건축물

차오저우 팔음회관(潮州八邑會館) (제2권 제1기 1948년)
페락(Perak) 한강공회(韓江公會) 외관 (제5권 제5기 1949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차오저우 팔음회관(潮州八邑會館) 전경 (제5권 제7기 1949년)
부키 메르따잠(大山脚 Bukit Mertajam) 한강공회(韓江公會) 외관 (제6권 제5기 1950년)
난양 푸닝회관 신회소(南洋普寧會館新會所) (제14권 제6기 1954년)
싱가포르 차오양회관 설립 28주년 기념 단체 사진 (제15권 제3기 1954년)
코타키나발루(亞庇) 차오저우 련의사(聯誼社) 설립 기념 단체사진 (제15권 제6기 1954년)
느그리 슴빌란(森美蘭 Negeri Sembilan) 차오저우회관 완공 그림 (제17권 제1기 1955년)
10층 규모 니안빌딩(義安大廈) 건물 전경 그림 (제17권 제3기 1955년)
싱가포르 지에양 회관 낙성식(新嘉坡揭陽會館洛城剪綵) (제19권 제8기 1956년)
건축중인 무아르(Muar 麻坡) 차오저우회관 및 페락 한강공회 (제21권 제1기 1957년)

싱가포르 잉추안공회 제10주년 기념 축하 사진(星洲穎川公會慶祝
第十週年留影) (제21권 제6기 1957년)

플라탄(Kelantan 吉蘭丹) 차오저우회관 전체 직원 사진 (제22권 제7
기, 8기 1958년)

느그리 슴빌란 차오저우회관 신입 직원 취직 사진 (제24권 2월호 1959년)

- 회관 활동

싱가포르 차오양회관(潮陽會館) 설립 23주년 기념 단체사진(제5권 제3
기 1949년)

싱가포르 차오안회관(潮安會館) 同鄉大會 (제8권 제7기 1951년)

말라야 차오저우 연합회 17주년 기념 대회 (제9권 제2기 1951년)

싱가포르 차오저우팔읍회관(潮州八邑會館) 경축 행사 (제9권 제4기
1951년)

말라야 차오저우 연합회 제14기 대표대회 회의 (제11권 제2기 1952년)

싱가포르 차오안회관(潮安會館) 행사 (제11권 제5기 1952년)

제19회 연례 말라야 차오저우 연합회 단체사진 (제13권 제3기 1953년)

조호르 지역(Johor 柔佛) 차오저우 팔읍회관 건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카테일 파티 (제15권 제5기 1954년)

믈라카(Melaka 馬六甲) 차오저우 회관 만찬 행사 (16권 제6기 1955년)

싱가포르 차오저우 심씨 연합회 1기 직원 취직 환영 모습 (제19권 제3기
1956년)

파투파핫(Batu Pahat 峇株) 말라야 화인 공회의 회장 차오핑지에(趙平
階)가 술타나(Sultana 蘇丹那) 시장 기념행사 참석 (제19권 제11
기 1957년)

3) 화교화인의 초국적 자선 활동

- 자선 활동 기관

싱가포르 동구선당(同救善堂) 성선사(誠善社) 중건 (제5권 제9기 1949년)

수덕선당(修德善堂) - 송파평 조사(宋大峰 祖師) 판액 (제7권 제9기 1950년)

싱가포르 수덕분당(修德分堂) 대회 (제11권 제7기 1952년)

중화선당 블루크로스 구제총회(中華善堂藍十救濟總會) 활동 재개 5주년 기념 카테일 파티 (제17권 제6기 1955년)

수덕선당 건립 40주년 기념 행사 (제17권 제9기 1955년)

싱가포르 수덕선당 분당 낙성 전례에서 장한산(張漢三)씨가 개막 행사를 진행 (제23권 10월호 1958년)

싱가포르 예평위(葉平玉)씨가 동봉선당(同奉善堂)에 증의시약(贈醫施藥)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 (제24권 3월호 1959년)

- 차오저우 및 샐터우 교향 자선활동

정하이현 공묘 폐허(澄海縣孔廟廢墟) (제2권 2기 1948년 3월 1일)

그림 “파괴된 금산(殘破的金山)”- 홍평(洪楓)의 목각 (제2권 제3기 1948년 3월 16일)

기아에 허덕이는 차오산(飢餓的潮汕) - 샐터우 존심선당이 식량을 제공 (汕頭存心善堂施粥) (제2권 제4기 1948년 4월 1일)

차오안현 중산공원의 구제활동 (제2권 제8기 1948년 6월 1일)

1949년 차오안에서 행해진 자선 활동 (제6권 제3기 1950년)

싱가포르 보구선당(普救善堂)에서 의성 화타의 탄신을 기념하기 위한 儒家 潮劇 <白雲庵>을 개최 (제8권 제9기 1951년)

싱가포르 중화선당 구제총회(中華善堂 救濟總會) 화재 피해들을 구제 (제12권 제12기 1953년)

중화선당 블루크로스 구제총회(中華善堂藍十救濟總會)의 자선 활동 (제18권 제2기 1956년)

블루크로스 중화 6대 선당이 매일 수십 명을 동원하여 게일랑(Geylang 芽籠) 지역 이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 (제22권 제5기 1958년)

4) 차오저우 출신 화교화인 저명인사 관련 소식

페낭(Penang 檳城) 차오저우 화교들이 왕짜오위안(翁照垣) 장군을 환영 (제2권 제6기 1948년 5월 1일)

제5구 책임자(專員) 겸 사령관 위잉치(喻英奇) 장군 (제3권 제1기 1948년)

정편원 박사(鄭振文 博士) 근접 사진 (제3권 제7기 1948년)

정리산 의사(鄭立珊 醫師) (제3권 제12기 1949년)

천차이화(陳彩華) (제7권 제3기 1950년)

예위잉(葉玉英) (제7권 제10기 1951년)

탄홍힘(Tan Hong-Him 陳鴻鑫)의 장례 모습 (제10권 제2기 1952년)

탄락세(陳六使 Tan Lark Sye), 린위탕(林語堂), 린리안텡(Lim Lean Teng 林連登) 말레이시아 페낭 회동 기념 사진 (제15권 제9기 1954년)

유럽으로 건너가 교육을 고찰하고 온 사라왁 쿠칭 총시학관 쉬야오동 선생 부부의 사진(赴歐考察教育之沙拉越古晉總視學官徐耀東先生伉儷之影) (제19권 제2기 1956년)

5) 동남아시아 차오저우 화교화인들의 교육 활동

싱가포르 단몽학교(端蒙學校) 38주년 기념 운동회 & 페낭 韓江學校 운동회 (제5권 제6기 1949년)

싱가포르 단몽학교에서 학생들이 체조하는 모습 (제6권 제2기 1950년)

단몽학교 13주기 운동회 전경/동사장과 교장의 모습/학생들이 체조하는 모습 (제7권 제5기 1950년)

페낭 한강중학(韓江中學) 시업식 (제8권 제2기 1951년)

싱가포르 단몽교우회(端蒙校友會) (제8권 제6기 1951년)

단몽학교 제14기 운동회 촬영 (제9권 제5기 1951년)

한강중학 2주년 기념행사 (제10권 제12기 1952년)

쿠알라룸푸르의 배재학교(培才學校) 건물 전경 (제11권 제3기 1952년)

싱가포르 단몽중학 50주년 개교기념 행사 회관 (제19권 제5기 1956년)

차오양학교 연극 교사 증축 기금 조성, 원편은 이사장 장한산(張漢三)이 개막사를 하고 있고, 오른편에는 현장에서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제20권 제12기 1957년)

6) 기타

- 제3권 제2, 3, 4, 5, 6, 8, 9, 10, 11기 표지사진: 차오저우 9개 현의 현장(縣長) 초상사진
- 제4권 제1기 - 제12기 표지사진: 차오저우 각 현의 지도
- 차오산 연해를 방어하는 중공 포병대 (제11권 제6기 1952년)
- 싱가포르 중국관찰단 차오저우 출신 화교화인 참관기(제19권 제12기 1957년/ 제20권 제1기 1957년)
- 인도네시아 화교 리쩌홍이 건축중인 산터우 화교신촌을 참관(印度尼西亞華僑李澤洪參觀建築中的汕頭華僑新村) (제20권 제5기 1957년)
- 건축중인 산터우 화교신촌(在建築中的汕頭市華僑新村) (제20권 제8기 1957년)

부록2 『차오저우향신(潮州鄉訊)』 표지 이미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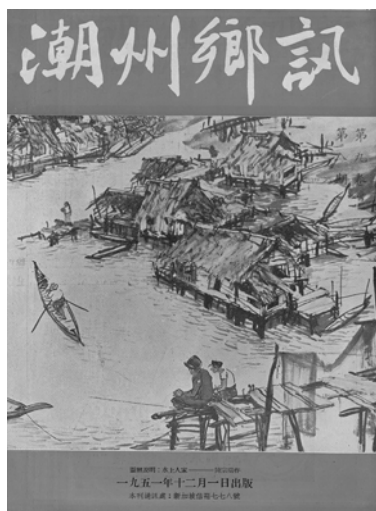
- 제2권 5기 산터우 중산공원
(汕頭中山公園)



- 제2권 제8기 차오안현 중산공원의
구제활동



- 제9권 제8기 천종스위(陳宗瑞)가
그린 “수상마을(水上人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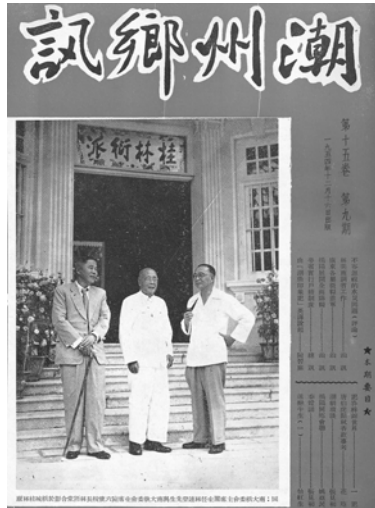
- 17권 제6기 중화선당 블루크로스
구제총회(中華善堂藍十救濟總會)
활동 재개 5주년 기념 각테일 파티



- 제5권 제10기 싱가포르 차오저우 화교화인들이 모이는 중심가 시장의 풍경



- 제15권 제9기 탄락세(陳六使 Tan Lark Sye), 린위탕(林語堂), 린리안텡(Lim Lean Teng 林連登) 말레이시아 페낭 회동 기념 사진



- 제2권 제1기 차오저우 팔음회관 (潮州八邑會館)



- 20권 제5기 인도네시아 화교 리쩌흥이 건축중인 산티우 화교신촌을 참관



Abstract

Searching for Overseas Chinese Identity of Cold War through “Qiaokan”

- Focusing on the Chaoshan Overseas Chinese Biweekly Newspaper,
Chaozhou Hometown News (潮州鄉訊) Between Singapore and
Guangdong Province -

KIM JongHo
Sogang University

The Chaoshan region of Guangdong province, a representative overseas Chinese dialect group that traveled to and from the South China Sea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comprises nine counties and the Shantou city. The overseas Chinese community of Chaoshan and their diaspora in Southeast Asia continued to interact during a period of global upheaval. This study examines their struggle for identity formation during the Cold War, when ideological conflicts and nationalism were simultaneously on the rise. In particular, "Chaozhou Hometown News," a newspaper published intensively during the Cold War from 1947 to 1962, is an important source for examining how overseas Chinese and their hometown interacted during the Cold War. This study focuses on its introduction and brief analysis.

A Qiaokan, the overseas Chinese magazine, is a periodical published

by overseas Chinese and hometown communitie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the "Chaozhou Hometown News",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has three main archival values. First, it is important in terms of studying the overseas Chinese magazine published by Chaoshan community, given that the existing studies on the overseas Chinese magazine have been mostly based on the periodicals published in Taishan, Guangdong. Second, it is unique that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on the overseas Chinese magazine focus on the publication in the 1920s and 30s, during the war years, and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up of the PRC, while "Chaozhou Hometown News", which was published only during the Cold War (1947-1962), is an important source of information on the perceptions of their hometown among overseas Chinese in Southeast Asia during the Cold War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ir transnational regional identity in the transition from the era of Empires to the era of nation-states. Third, while most of these publications have been published for overseas Chinese by private organizations or local governments in the hometown to encourage interest in and economic support for the hometown or the motherland, this study can be discussed in a different dimension because "Chaozhou Hometown News" had been published in Singapore and distributed to the hometown area by a group of overseas Chinese from Chaozhou in Singapore and Malaya to strengthen their links with the hometown at the beginning of the Cold War.

This study introduces the outline, overall structure, and main contents of the "Chaozhou Hometown News," and analyzes individual cover images (photos and paintings) of all 273 issues to examine the ways in

which the links between overseas Chinese in Southeast Asia and the hometown community in China were maintained, adapted, and changed during the Cold War.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structure and format of the magazine, as well as its cover images, reveal the overseas Chinese and hometown communities of Chaoshan sought to survive by maintaining their regional identity as dialectal groups within the Asian Cold War framework of the transition from imperialism to nationalism.

Keywords: Overseas Chinese magazine, Qiaoxiang, Chaozhou Hometown News, Chaoshan, Cold War, Overseas Chinese